



연중 제32주일(11월 10일)

율법 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가난한 과부의 헌금(마르 12, 38-44)



가난한 과부의 헌금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가난한 한 과부의 렵톤 두 닢의 가치에 관해 말씀하고 계신다. 화가는 과부를 갓난아이와 앞을 보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함께 표현하여 극대화하기까지 했다. 이 여자에게 이 돈이면 두 아이와 하루를 버틸 수도 있는 분량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여자는 하느님을 위해 아낌없이 내어놓고 있다. 비록 힘겹게 살아가고 있으나 하느님의 은총을 믿고 있었던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율법학자들을 강하게 바라보면서 하느님께서 셈하시는 것은 가난한 여자의 렵톤 두 닢이 아니라 그 두 닢의 귀중함, 다시 말해서 봉헌에 담긴 사랑과 희생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계신다.

작가 조제프 나베 | 1840년, 캔버스에 유채, 167.5x233.5cm, 개인소장.

시작성가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217번 “정성 어린 우리 제물”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 진행자 | :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시어 저희 마음을 열어주소서.
- 주님! 저희가 당신의 말씀을 새겨들을 수 있는 은총을 주소서.

하느님 말씀

| 진행자 | : 한 분이 마르코 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 그때에 예수님께서서는 군중을 38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이르셨다. “율법 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긴 겹옷을 입고 나다니며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즐기고, 39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를, 잔치 때에는 윗자리를 즐긴다. 40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등쳐 먹으면서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는 길게 한다. 이러한 자들은 더 엄중히 단죄를 받을 것이다.” 41 예수님께서서 헌금함 맞은쪽에 앉으시어, 사람들이 헌금함에 돈을 넣는 모습을 보고 계셨다. 많은 부자들이 큰돈을 넣었다. 42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 와서 렵톤 두 닢을 넣었다. 그것은 콰드란스 한 닢인 셈이다. 43 예수님께서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저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돈을 넣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44 저들은 모두 풍족한 데에서 얼마씩 넣었지만, 저 과부는 궁핍한 가운데에서 가진 것을, 곧 생활비를 모두 다 넣었기 때문이다.”

| 진행자 |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 진행자 |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나는 누구보다 더 나은 평가를 받기 위해, 겉으로 드러나는 일에만 신경쓰지는 않았습니까? (마르코 12,38-39 참고)

내가 하느님을 위해 하고 있는 일(또는 내가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마르코 12,43-44 참고)

한걸음 더 나아가기

| 진행자 |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 와서 렵톤 두 닢을 넣었다. 그것은 콰드란스 한 닢인 셈이다.”
마르코 복음사가는 과부의 헌금을 자세하게 언급합니다. 렵톤 두 닢은 콰드란스 한 닢과 같은 가치를 지닙니다. 오늘날 렵톤과 콰드란스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으나 과부는 렵톤 두 닢을 지닌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과부는 더 낮은 단위의 돈을 지닌 사람입니다. 낮은 단위의 돈을 전 과부의 모습에서 오늘날 가난한 이들의 현실을 봅니다.

과부는 가난한 현실을 살았지만 하느님 앞에서는 부유합니다. 큰돈을 넣었지만, 자기 재산에서 일부만 내어놓는 부자들과는 달리 과부는 작은 돈을 넣었지만, 자신의 모든 재산을 내어놓습니다. 부자들은 하느님 앞에서 궁핍하지만, 과부는 하느님 앞에서 부유합니다. 과부가 봉헌한 렵톤 두 닢에서 하느님을 향한 과부의 선한 마음을 봅니다. 탐욕으로 현실에 눈먼 이가 아니라 선한 마음으로 하느님께서 주시는 희망을 볼 줄 아는 이. 우리가 과부에게서 배워야 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초라해 보일지라도 하느님을 향한 선한 마음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생명의 말씀 써보기

[마르코 12장 43-4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저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돈을 넣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저들은 모두 풍족한 데에서 얼마씩 넣었지만, 저

과부는 궁핍한 가운데에서 가진 것을, 곧 생활비를 모두 다 넣었기 때문이다.”

함께살기

| 진행자 | : 우리 소공동체가 희년을 준비하며 실천할 사항들을 정해 봅시다.

◀ **망자와 그 가족들에게 전하는 위로** ▶ 교황님 11월 기도 지향에 따라

공동체와 함께

- ① 소중한 이를 잃어 힘들어하는 이웃이 있다면, 찾아가 함께하며 슬픔을 나누고 위로하기
- ② 전쟁으로 세상을 떠난 이들, 특히 아이들을 위하여 미사 봉헌하고 함께 기도하기

내 삶 속에서

- ① 먼저 떠나간 내 가족, 이웃들을 기도 중에 기억하는 시간 가지기
- ② 기억되지 못하는 자, ‘무연고 사망자’들을 위해 기도하기

마침기도

| 진행자 |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501번 “받으소서 우리 마음”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